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美 경제 재개 후 한 달..경제나 코로나 19 에 뚜렷한 전환 안 보여
 - ◇ (초점)-코로나 19, 여름에 확산 둔해질 가능성..종식은 어려울 듯
 - ◇ (초점)-'마이 웨이' 조윤제 금통위원 행보, 향후 금통위 판도 변화 예고하나
 - ◇ (시장진단)-FOMC 회의 서프라이즈 없었지만..전문가들이 주목한 대목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생활고와 코로나 19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있다. (로이터/나베시 치트레이커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6월12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03.8	0.3%	-3.9%	-3.5%	유로	1,1254	-0.3%	0.4%	-2.3%
100엔 대비	1,121.0	-2.2%	-5.2%	-4.4%	엔	107.34	2.1%	1.2%	0.9%
유로 대비	1,354.6	0.1%	-4.5%	-1.3%	위안	7,0640	0.7%	-1.4%	-1.3%
위안 대비	169.86	-0.1%	-2.4%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5,605.54	-5.6%	-10.3%	22.3%
코스피	2,132.30	-2.3%	-3.0%	7.7%	나스닥	9,588.81	-2.3%	6.9%	35.2%
코스닥	746.06	-0.4%	11.4%	-0.9%	S&P500	3,041.31	-4.8%	-5.9%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05.15	-1.6%	-8.6%	15.8%
국고채 3Y	0.841%	-5.3bp	-51.9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25%	-6.4bp	-35.5bp	-40.4bp	미국채 2Y	0.195%	-1.5bp	-136.6bp	-93.7bp
국고채10Y	1.388%	-6.4bp	-29.5bp	-26.5bp	미국채 10Y	0.710%	-18.4bp	-120.0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36.26	-8.3%	-40.6%	34.5%	한국 5Y	25.9bp	4.3bp	4.9bp	-17.0bp
금(현물)	1,729.77	2.6%	14.0%	18.3%	일본 5Y	38.0bp	0.0bp	20.3bp	-4.0bp
TR상품지수	2,212.38	-0.4%	-11.0%	4.8%	중국 5Y	49.7bp	5.5bp	19.0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6월 15일(월)>

- 기재부, 대외경제장관회의(08:00), 확대간부회의(15:00)
- 금융위, 자동차부품 산업 현장간담회(10:00)
-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14:00)
-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14:00)

<16일(화)>

- 금감원, 4월말 국내은행 연체율(잠정)(06:00)
- 한은, 1/4분기 기업경영분석, 5월중 거주자외화 예금 동향(12:00),
- 금감원,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12:00)
- 금융위, 클라우드펀딩 발전 방안 간담회(14:30)
- 한은, 5/28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 기재부,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18:00)

<17일(수)>

- 기재부, 녹실회의(미정)

<18일(목)>

- 금감원, 2019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06:0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7:30)
- 통계청,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12:00)

<19일(금)>

-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08:00)
- 한은, 2019년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6월 15일(월)>

- 일본,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16일)
- 중국, 5월 주택가격 (10:30)

- 중국, 5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11:00)
- 중국, 5월 산업생산·소매판매 (11:00)
- 유로존, 4월 무역수지 (18:00)
- 미국, 6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 (21:30)

<16일(화)>

- 일본, 일본은행 금리 결정 발표
- 미국, 5월 소매판매 (21:30)
- 미국, 5월 산업생산 (22:15)
- 미국, 4월 기업·소매재고(23:00)
- 미국, 6월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23:00)

<17일(수)>

- 일본, 6월 로이터 단칸 (08:00)
- 일본, 5월 수출·수입 (08:50)
- 일본, 5월 무역수지 (08:50)
- 유로존, 5월 월별소비자물가지수(HICP) 최종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5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1:30)

<18일(목)>

-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01:00)
- 미국,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연설(05:00)
- 영국, 영란은행 금리 발표 (20:0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6월 필라델피아연은 경기지수(21:30)

<19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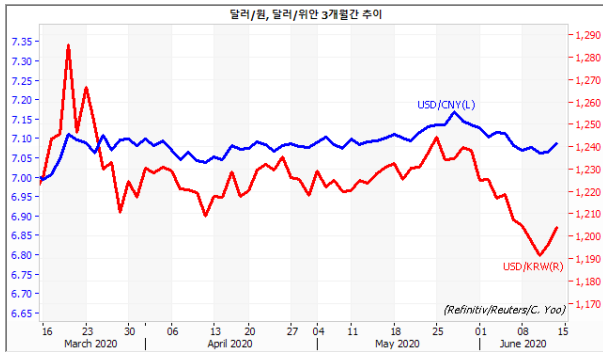
- 일본,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8:30)
- 일본, 일본은행 4월 27일, 5월 22일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공개(08:50)
- 스위스,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 발표(16:30)
- 유로존, 4월 경상수지 (17:00)
- 미국, 1분기 경상수지 (21:30)
- 미국,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연설 (23:15)

<20일(토)>

-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화상회의 참여 (02: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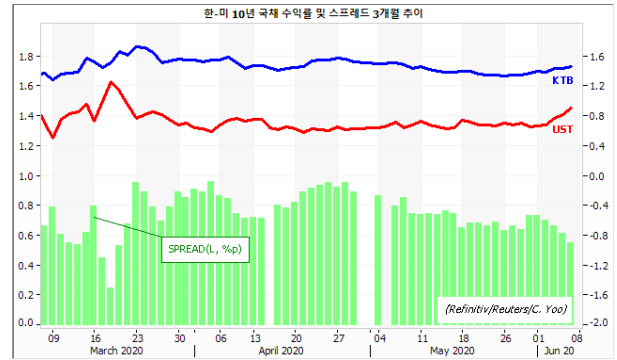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코로나 19 재확산 및 경제 더블 딥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대남 무력 시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1200 원 선을 사이에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경제의 더블 딥 우려가 확산해 주가가 폭락한 뒤 주말에 부분적인 반등에 성공했지만,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줄 정도는 되지 못했다.
- 훼손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발표할 최근 실물경제 지표도 코로나 19의 위력을 실감케 할 예정이다.
-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국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코로나 19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각지에서 2차 확산 조짐이 짙어지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북한의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 한편, 미국에서는 흑인 시민이 경찰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주말 동안 또 발생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기대로 달려 온 위험자산 시장이 연일 불확실한 미래를 강조하는 재료들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지 관건이다. 연준의 비관적인 경제 전망은 통화 완화 정책 강화와 경제 침체 장기화 가능성 재확인이라는 상반된 신호를 줄 것이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코로나 19 재확산 추이,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의 움직임과 맞물려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주가 등 위험자산 가격의 움직임과 실물경제의 괴리에 대한 시장의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의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확대되는 모습은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 미국 애틀랜타에서 또다시 경찰의 발표에 의한 흑인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태의 추이 역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악재를 빠르게 털어내고 반등한다면 채권금리는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다.
- 한국은행의 국고채 적매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국고채 10년물 입찰 준비가 다소 약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주초 국고채 10년물 입찰을 기점으로 해지가 늘어날 가능성을 것인 만큼 역시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 접근해야 할 듯하다.

(분석)-美 경제 재개 후 한 달..경제나 코로나 19에 뚜렷한 전환 안 보여

워싱턴 (로이터) - 미국 경제 재개 노력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기 회복 속도와 지속성, 또는 미국인 11만 2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억제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것이 없다.

소매점 유동인구, 인력 관리,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에 관한 자료는 꾸준한 회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자료들은 주들 간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이 상황은 향후 몇주간 정책입안자들의 선택은 더욱 힘들 것임을 의미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코로나 19 최근 추이에도 불구하고 경제 봉쇄조치 재개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19로 지난 3-4월간 취해진 엄격한 조치로의 복귀와 관련해 공중 보건에 대한 우려와 전국적인 인내심 저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은 각 주와 지방 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느리고 불균형한 경제 활동 회복은 미국의 각 지역을 코로나 19 대응의 잠재적 승자와 패자로 천천히 분류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추가 긴급 자금 지원 여부에 대한 논쟁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의 지원은 마감일이 이미 지났고, 대부분 노동자의 실업급여 지원은 7월 말에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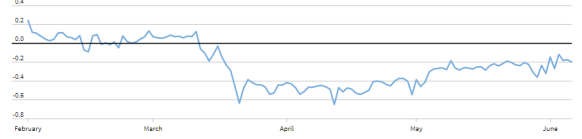
인력관리 전문 업체인 홈베이스의 중소기업 자료를 보면 역동적이다. 영업을 재개한 회사들은 외출제한 이전 수준으로 고용을 회복했다. 하지만 홈베이스는 아직 많은 기업들이 완전히 영업을 재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평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 U.S. reopening

Firms that monitor retail traffic using cellphone location data provide a window on the depth of the downturn and the slow crawl back to normal. Time management data shows changes in store openings and emplo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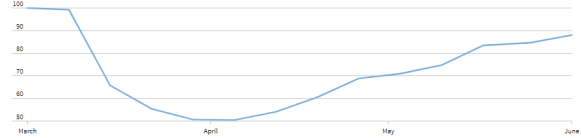
UNACAST: RETAIL TRAFFIC

Traffic is rising as a % of the 2019 level, and more states have exceeded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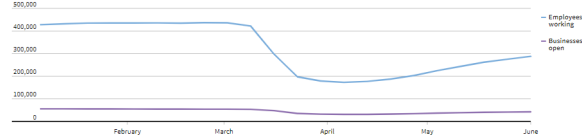
SAFEGRAPH: RETAIL TRAFFIC

Indexed to March 1, the data shows traffic approaching pre-shutdown lev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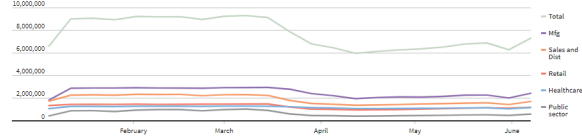
HOMEBASE: SMALL BUSINESS

Data from a set of small businesses showed more open and more people working.



KRONOS: EMPLOYEE TIME

Time clock "punches" at around 50,000 firms show rising activity.



Unicast, SafeGraph, Homebase, Kronos
Howard Schneider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매크로폴리시 퍼스펙티브의 대표인 줄리아 코로나도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대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끔찍한 상황이다. 임시 휴직은 영구적 감원이 되고 있다. 만약 사회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제적 행복과 건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 혼조적 자료

시장 정보업체 유나캐스트는 지난 주 소매점 유동인구 규모는 전국적으로 2019년 수준의 20% 이하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인력관리 업체인 홈베이스와 크로노스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근로자들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4월에는 활동이 50% 이상 감소했다.

11일 발표된 주간 실업률 자료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줄었고 실업수당 재청구 건수는 5월 30일까지 한주간 감소했다. 기업들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일부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매점 유동인구 수치면에서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다. 유나캐스트 자료에 따르면 몬태나주부터 앨라배마주까지 남동부 방향에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주들 중 약 3분의 1이 완전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초기부터 판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해안 지역과 민주당 성향의 주들은 거의 반등을 하지 못했다. 3월 13일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19개 주는 소매점 유동인구 수치가 2019년 수준에 도달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 이 중 14개의 주들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로이터의 확진자 증가세 주간 변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 주들 모두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동안 조사된 세 차례의 주간 변화 자료를 살펴보면, 소매점 방문 측면에서 회복세가 부진했다는 주들의 경우 지난 3주 중 평균 2주간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다른 주들의 평균은 1.3주에 불과했다.

경기 회복의 방향과 코로나 19 궤적에 대해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애널리스트들과 정책입안자들을 성가시게 할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최근 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발언의 핵심이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이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주별, 각 도시별 싸움을 벌이고 있기에 백신이나 다른 치료법을 개발하기 전까지 높은 실업률은 수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코로나 19, 여름에 확산 둔해질 가능성..종식은 어려울 듯

(로이터) - 북반구 지역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여름이 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둔화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된다. 이에 과학자들은 이렇게 답한다.

보통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계절성 독감은 사라지지만, 현재는 기후만으로는 코로

나 19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과 이집트 같은 더운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 습도, 환기 등의 요소가 코로나 1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여름에 확산세가 둔해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어느정도 힘이 실린다.

◆ 코로나 19는 '계절성'인가?

확실한 답을 하기에는 코로나 19를 경험한 시간이 짧다.

독감이나 일반 감기 등 호흡기 감염은 온대 지역에서 계절 패턴을 따라간다. 차가운 날씨, 낮은 실내 습도, 잦은 실내 활동 등의 환경 조건 모두 판데믹 확산을 재촉할 수 있다.

날씨가 코로나 1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질적 증거들은 엇갈리고 있다. 중국의 221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온도, 습도, 햇빛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두 연구에서는 날씨의 효과를 발견했다. 그 중에는 47개국의 신규 감염을 살펴보고, 필리핀, 호주, 브라질 같은 지역에서 높은 기온과 느린 감염 속도를 연관시킨 연구도 있다.

11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또 다른 연구의 저자들은 “북반구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수는 여름에 감소한 뒤 겨울에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적도에서 위도 거리가 1도 늘어날 때마다 감염자수가 2.6%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긴급대응팀장은 “계절이나 기온이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 의존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왜 호흡기 질환은 여름과 겨울에 다르게 확산될까?

영국 레딩대학교 세포 미생물학 전문가인 사이먼 클라크는 “추운 날씨에 기침, 감기, 독감이 확산되는

이유는 찬 공기가 비강과 기도를 자극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겨울의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은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여름에도 에어컨 때문에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긴 하다.

미국 정부 연구원들은 연구소 실험 결과,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면 표면에 있는 코로나 19 입자들이 감염 능력을 더 빨리 잃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햇빛에 노출되면 특히 더 빠르게 활동 능력을 잃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전문가들은 손을 자주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여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여전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감염자들이 기침을 하거나 숨을 쉴 때 나오는 바이러스 입자가 야외에서 더 빨리 흩어지겠지만, 미풍만으로도 침방울이 6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여름의 어떤 점이 또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비타민 D가 있다. 연구진들은 혈액에서 면역 조절을 담당하는 비타민 D 수치가 코로나 19 감염 취약성과 아픈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혈액 속 비타민 D는 주로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생성된다.

꽃가루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에서 최근 몇 년간 코로나 19를 포함한 모든 ‘독감과 같은’ 질병에 대해 조사한 결과 꽃가루 농도가 햇살보다 호흡기 질환의 추세를 알 수 있는 더 나은 예측 변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꽃가루는 공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해 바이러스 입자를 낚아채며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에서도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킨다.

연구 결과, 공기 중 꽃가루가 입방 미터 당 610 그레인에 도달하면 독감 종류 질병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대부분 중위도 지역에서 초봄부터 10월까지 보이는 전형적인 수치다.

(초점)-'마이 웨이' 조윤제 금통위원 행보, 향후 금통위 판도 변화 예고하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조윤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의 행보가 연일 채권시장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식 보유 문제 때문에 지난 5월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제척되며 주목을 끈 데 이어, 관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도 전에 외부 강연에 나서는 등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에선 조 위원장이 통상적인 금통위원들의 임기 초반과는 다른 결의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금통위 의사결정에서 조 위원장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주식 보유 문제 결론 기다리며 외부강연 나선 조 위원

조 위원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후죽순’ 제 1차 정기토론회에서 ‘한국경제: 어디에서 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우후죽순은 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든 공부모임이다. 이날 조 위원장의 강연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사전에 배포된 자료집을 통해 조 위원장은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제도 및 정책개편에 나서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장은 사전에 배포한 자료집에서 압축적인 경제사회적 변화과정을 겪어 온 한국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빠른속도로, 적시에, 창의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의 대외 행보는 취임 한 달 반만에 이뤄진 것이다. 통상 금통위원들이 새로 취임한 후 각종 현안 파악에 집중하며 대외 행보를 자제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외부에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조 위원장의 이번 강연이 주목받는 또다른 이유 중 하나는 금통위원 취임 후 열린 5월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그가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제척됐기 때문이다.

조 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한 게 문제가 됐다.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의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5월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도 배제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참가자들은 조 위원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가능하는 데 기본이 될 경제 판단을 금통위 회의록보다 먼저 국회의원 공부모임에서의 발언을 통해 접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한은 금통위실의 한 관계자는 조 위원의 주식 보유와 외부 강연 등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제 조 위원의 외부 강연은 저녁시간 만찬으로 잡힌 것이고 비공개라고만 들었다"며 "주식 보유와 관련해 심사를 받고 계시지만 그 것과 이번 외부 강연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조 위원의 주식 보유 문제는 원칙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고 있다"며 "조 위원은 원칙을 지키면서 대외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참가자들, '조 위원 금통위내 영향력 확대될 것'

채권시장 일각에선 조 위원의 행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된다. 주식 보유 문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듯한 조 위원의 행보, 금통위원 선임 직후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한국경제 강연을 펼친 것 등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조 위원에게 가능한 행보라는 것이다. 임기 초반에 이 정도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금통위 내에서 조 위원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은지점의 한 트레이딩헤드는 "조 위원이 주식보유와 관련해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 몰라도 시장참가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룰 하나를 어겼다"며 "조 위원이 이 룰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한은 내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조 위원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총재 발언과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듯하다"며 "금통위 내에서 정부측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며 논의를 주도해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조 위원이 한은 총재로까지 거론된 분이다 보니 다른 금통위원들과는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미대사를 마치고 금통위원까지 했다는 건 정부의 엄청난 신임을 얻고 있다는 의미인데 최근 행보를 보면 앞으로 회의에서 발언의 무게감이 다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장진단)-6월 FOMC 회의 서프라이즈 없었다지만..국내 전문가들이 주목한 대목은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0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이틀간 열린 정례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현 0.00~0.25% 동결하고 점도표를 통해 2022년까지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가 경제 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당분간 크게 압박하고 중기적으로도 경제 전망에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범위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준의 월간 채권매입 규모를 적어도 현재 속도인 국채 800억달러, 기관채 및 모기지채 400억달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수익률 커브 컨트롤과 관련해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에 대해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해, 경기 부양을 위해 수익률 커브 컨트롤을 도입할 준비 중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강화했다.

한편 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6.5%(작년 12월 +2.0%), 내년 성장률은 5.0%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번 6월 연준 회의 결과에 대해 시장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는 무난한 평가를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도비시했다는 해석을 붙였다.

다음은 국내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정리한 것이다.

▲ 이승훈 메리츠증권증권 투자전략 파트장

연준이 적어도 2022년까지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향후 수 개월간 자산매입의 속도 조정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위험자산 가격에 긍정적이다. 금융시장 과열 혹은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이유로 연준이 현행 기조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외환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매력에 반감되고 리스크 온모드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달러화 약세 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 주도의 광의통화 팽창이 이어지고 원자재 가격 반등에 따른 신흥국 위험의 경감도 달러화 약세 연장을 높이는 요인이다.

▲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미 연준은 신중한 경기 전망 기조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재차 확인시켜줬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자제시키는 동시에 부양정책 조기 종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연준이 상당기간 강력한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점에서 달러화는 추가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음을 동시에 시사한다.

▲ 강승원 NH 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안정적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도비시한 회의였다. 한편 연준은 빠르면 늦어도 4분기 중 보다 본격적인 수익률 곡선 통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이미 연준은 국채, MBS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결국 향후에도 매입 속도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익률 곡선 통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

이번 회의는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코로나 19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 경기 방어 지원을 지속할 것을 확인시켰다. 연준의 강력한 경기 방어 스탠스 확인은 달러 유동성 확대와 시장 위험선호를 자

극하며 당분간 약달러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달러화 약세는 위험선호 지속 기간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실질적인 경기 회복 강도, 미 연준과 ECB의 자산 확대 속도 및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방향서를 고민하게 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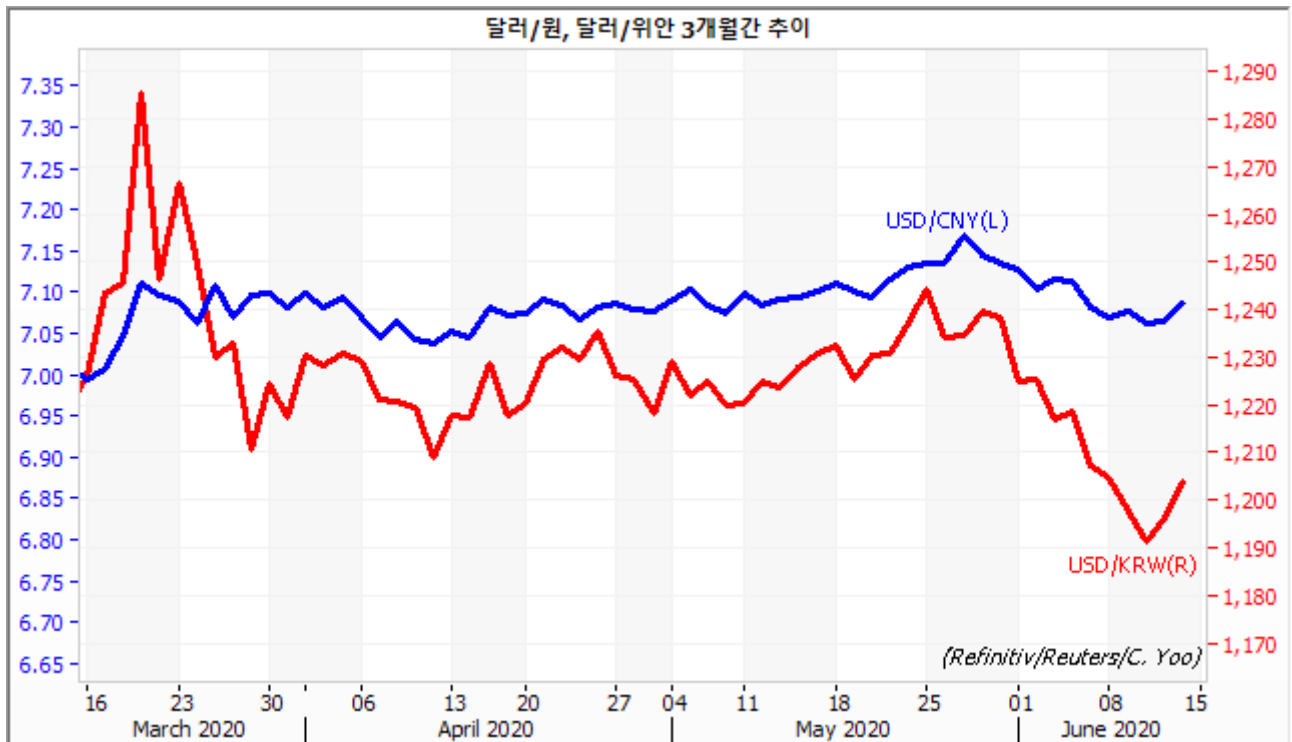
▲ 나중혁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

미 연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위험자산의 추가 랠리보다는 자산시장의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10년 국채금리를 제외한 주요 금융변수는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달러인덱스 약세 흐름은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한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을 20% 정도 반영하며 지난 5월 초 제기된 마이너스 금리 도입 베팅이 소폭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체적으로 시장과의 소통에서는 무난했던 이벤트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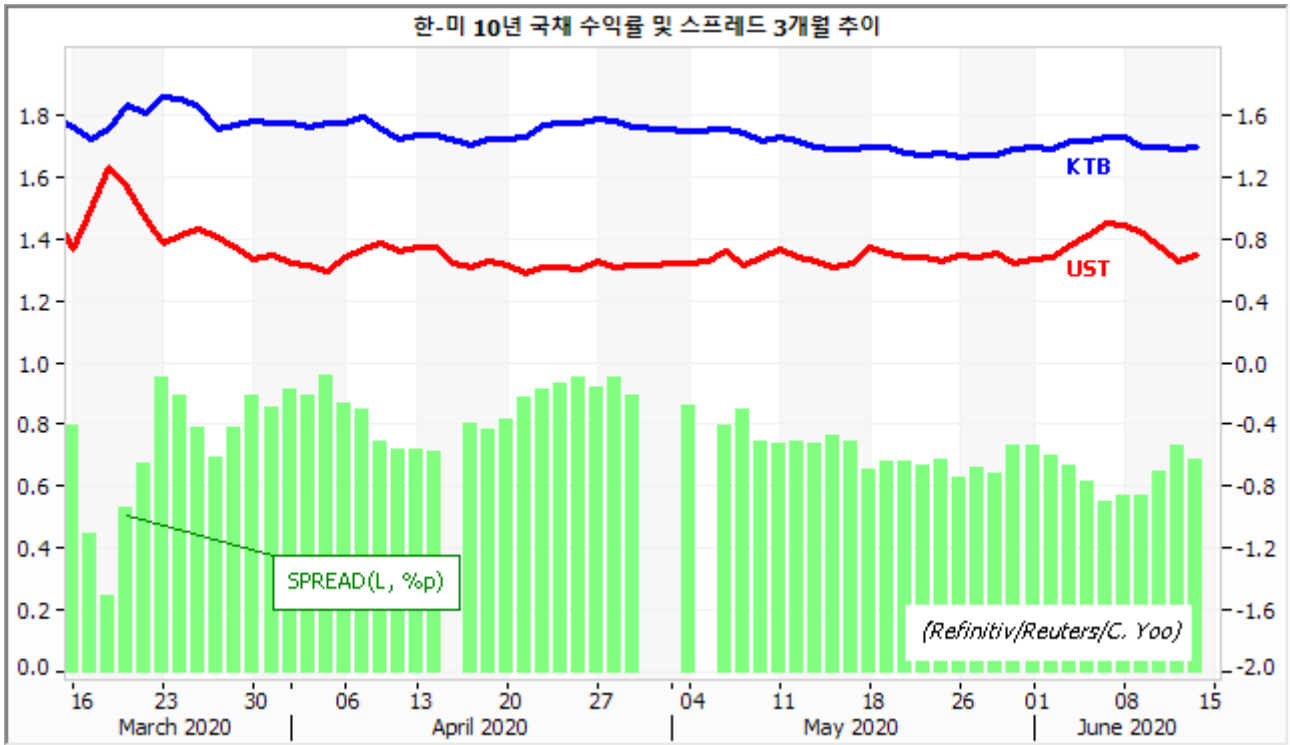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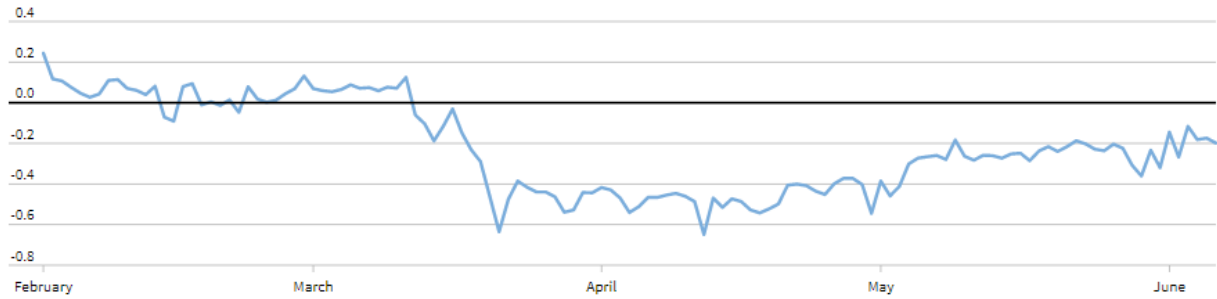


The U.S. reopening

Firms that monitor retail traffic using cellphone location data provide a window on the depth of the downturn and the slow crawl back to normal. Time management data shows changes in store openings and emplo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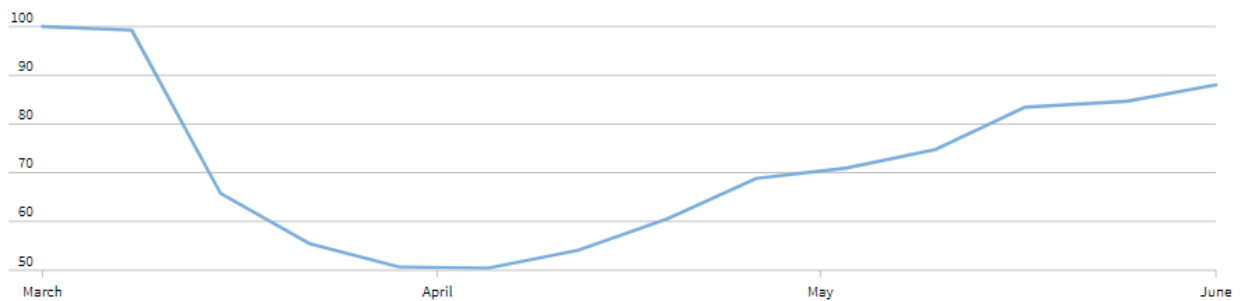
UNACAST: RETAIL TRAFFIC

Traffic is rising as a % of the 2019 level, and more states have exceeded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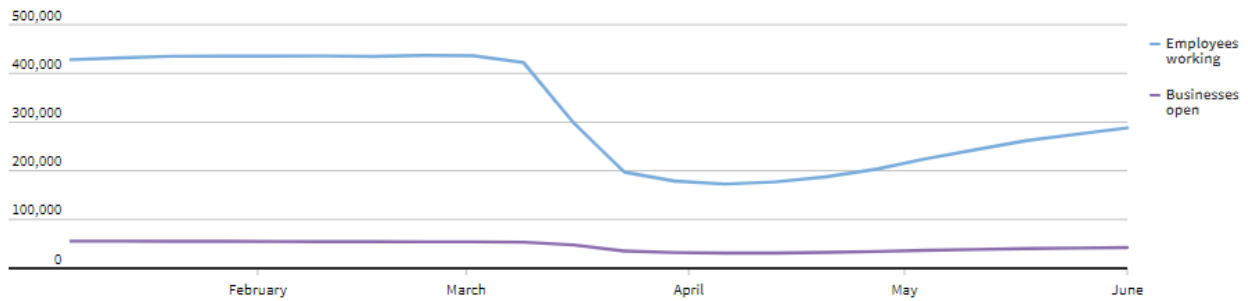
SAFEGRAPH: RETAIL TRAFFIC

Indexed to March 1, the data shows traffic approaching pre-shutdown lev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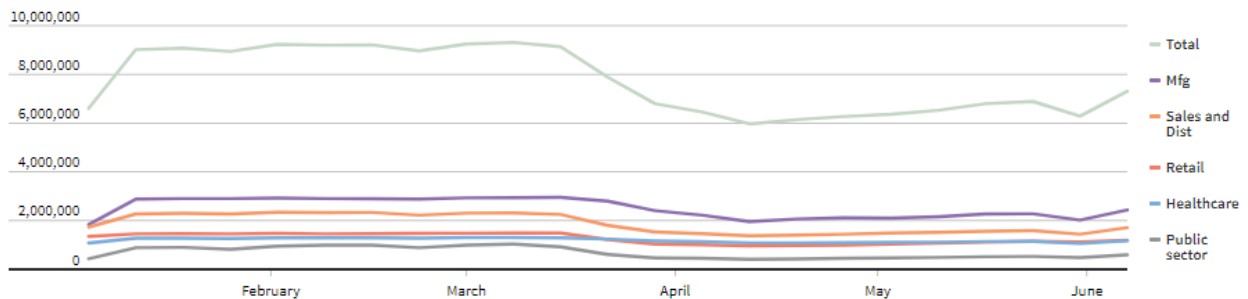
HOMEBASE: SMALL BUSINESS

Data from a set of small businesses showed more open and more people working.



KRONOS: EMPLOYEE TIME

Time clock "punches" at around 30,000 firms show rising activity.



Unacast, Safegraph, Homebase, Kronos
Howard Schneider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